

개봉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

2023년까지 총 149억원 투입 '도시 재생' 추진

국토부, 중랑·양천구 등 포함 전국 47곳 포함

구로구 개봉1동이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제24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중랑구, 양천구, 부산 북구 등 전국 47곳을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근린형 33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주거지지원형 4곳이다.

개봉1동은 '우리동네살리기'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47개 사업에는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7000억원이 순차 투입돼 총 616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 부문에 선정된 개봉1동은 139-101번지 일원 5만1천400㎡에 202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모두 149억7900만원이 투입된다.



개봉1동이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개봉1동을 비롯, 중랑구, 양천구, 부산 북구 등 전국 47곳을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개봉1동 사업 대상지역>

사업별로 보면 마중물사업으로 주택개량지원사업 7건 125억원과, 지자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건에 8억200만원, 공기업투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LH)에 16억 7700만원이 쓰여진다.

사업 대상지내 전제건축물 186개소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91%로 건축물의 노후가 심각하고, 다가구주택이 65%로 가장 많고 맹지가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지역은 지난 2017년 3월 정비

구역 해제이후 다양한 주민모임과 재생사업 움직임을 보여 정비구역 해제 비상대책주민모임에서 재생사업을 추진을 위한 '다원'이 만들어졌고, 이를 시작으로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추진과 주민협의체 설립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한편 국토부는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일자리 9000여개(건설단계: 7000여개, 운영·관리단계 2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뉴딜 신규사업지 선정은 사업을 통해 위험건축물 정비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정책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9월 1차 23개 사업 선정에 이어 2차로 47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총 70개가 됐다. 국토부는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여 개의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 사업으로 확대돼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롯데마트 구로점 이달말 문 닫는다

15년만에... 지난 29일부터 '점포정리 고별전' 들어가

그동안 폐점설이 나돌던 롯데마트 구로점이 결국 오는 11월 30일 문을 닫는다.

점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서울

시내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도봉점과 함께 구로점 폐점을 결정했다.

롯데마트 구로점은 경인로변 고척교 앞 사거리(중앙유통상가 맞은편, CJ제일제당공장 옆)에 위치해 대지면적 1만5846㎡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만9898㎡ 규모로 지난 2005년 5월 대규모 점포로 등록, 그동안 인접 지역 구로1·2동 및 고척교 건너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15년 만에 문을 닫게됐다.

기자가 찾은 지난 2일 저녁, 많은 고객들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한 '점포정리 고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최고 80%까지 할인행사로 지하 1층 의류, 운동화 점포에는 많은 고객들이 좋은상품을 고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인근 구로1동 한신아파트에 사는 주부 정모(56)씨도 "고별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들과 함께 왔



폐점설이 나돌던 '롯데마트 구로점'이 오는 11월30일 문을 닫는다. 롯데마트 구로점은 경인로변 고척교 앞 사거리에 지하 1층 지상 7층 대규모 점포로 그동안 매출부진으로 15년만에 폐점하게 됐다.

다"며 "이런 큰 점포가 없어진다고 하니 한편으로 아쉽고 서운하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날 점포 직원과 임대매장 점주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설명회도 가졌다. 롯데쇼핑 측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점포점장들이 직원들의 인근 점포 재배치 계획과 영업종료에 따른 임대 매장 점주 보상안 등을 협의 한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구로점 한 관계자는 "12월부터 고객들에게 인근구에 있는 영등포 양평점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이후에는 이곳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저희 점포 실무진들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구로점은 대림코퍼레이션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철거 후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공항소음 시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 43만여 명의 서울 시민이 공항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는 시민과 소통하며 공항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제 강서, 구로, 금천분소가 문을 열어 더 넓게 더 가까이 찾아가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기관

하늘은 높게 소음은 낮게

I·SEOUL U

양천센터(신원4동)
02.2696.1355

강서분소(화곡동)
02.2605.1355

구로분소(구로1동)
02.862.1355

금천분소(독산동)
02.807.1355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702원 확정

정부 최저임금보다 1,982원 더 많아... 한달 223만6,700원 수령

구 직접 채용,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모두 411명 내년 1월부터 적용

구로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최근 확정했다.

2021년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1만523원보다 179원이 인상돼 1.7%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상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달에 223만원 6,718원을 수령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등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411명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한다.

구로구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

에 도시 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을 적용하고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구로구는 지난 2015년 3월 구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7월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조희숙 일자리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의정대상' 수상

TV서울 개국 7주년 기념식서 '기초의원 부문'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코레일빌딩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개국 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광역·기초의원 의정대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모범공무원상 등 각계 분야에서 우수한 공로가 인정되는 분들을 선정하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3선 의원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8대 후반기 구로구의회의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코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코레일빌딩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며 구민의 복

리증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지역을 살피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높이 평가 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을 마치고 박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에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이다"며 "이상은 구민들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당부로 알고 앞으로도 46만 구로구민들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법무부와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이성 구청장, 지난 6일로 회장 임기 마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법무부와 지난달 30일 '제3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성 구청장을 비롯해 임원 도시 구로·시흥·안산·화성시와 법무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가 법무부와 지난달 30일 '제3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성 구청장을 비롯해 임원도시(구로·시흥·안산·화성)와 법무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지수 개발 관련 협력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6일 3~4대 회장 임기를 마치는 이성 구청장은 "임기 동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의 정례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외국인정책 심의와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2020 내·외국인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18일까지 방문조사 ... 인터넷·모바일·전화 참여도 가능

구로구가 오는 18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주택 등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 통계조사다. 각 지역의 복지·경제·교통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해 조사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선정된 표본 대상 중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사전 인터넷·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진행한다. 방문 조사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인터넷·모바일·유선전화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구로구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0.11.1) 현재 3만6,764가구다. 조사항목은 인구, 가구, 주택 3개 분야 4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1인 가구 사유, 활동 제약(장애인 등) 돌봄, 반려동물 보유 등의 항목 등을 처음으로 조사한다.

문의) 구청 홍보전산과 860-2929. <김유권 기자>

"늘어나는 중년 1인 가구,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고민해야"

40~60대 1인 가구 매년 꾸준히 증가, 2019년 42만명 넘어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강조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서울의 중장년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은 많지 않다"며 "보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층은 물론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를 통해



서울에 사는 40~64세 중·장년 1인가구는 2016년 39만7385명, 2017년 40만8349명, 2018년 41만5455명, 2019년 42만7274명으로 매년 1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원은 이혼과 가족해체, 실업 등으로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근 관악구 대학동 1인 중년 가구를 조명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중년 거주민들이 주거와 식사 해결 문제, 외로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동에 사는 대부분 거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 밀려서 입주가 어렵거나,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커다란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거복지 정책이 집중되면서, 중년 등 다른 계층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주거복지 정책에서 중년 등 다른 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서울시민들이 보편적인 주거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테고리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팩스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회장 : 유희상 주간 : 한만수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 김유권 편집국장 : 채홍길 대표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268가구 공급

179-11번지 일대 1938㎡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

내년 상반기 착공, 2023년 3월 입주 예정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268가구(공공임대 50가구, 민간임대 218가구) 규모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3월 준공 및 입주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봉동 179-11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결정고시했다고 지난 5일 밝

혔다.

대상지는 개봉동 179-11번지 1938㎡ 일대로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받아 용적률 499.77%, 연면적 1만4125㎡, 지하3층~지상20층(약 62m) 규모 주거복합 건물로 지어진다. 평형별로는 최소 규모인 16형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공공임대에는 총 50가구 중 21가구(42%)가,

민간임대에는 총 218가구 중 152가구(69.7%)가 16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해 순위를 따지며 소득이 없는 지원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별한다.

〈채홍길 기자〉

‘재외동포 언론사 편집인 초청 국제 화상 심포지엄’ 개최

5일~7일 3일간 구로오늘신문 한만수 주간 등 주제 발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중구 건설회관에서 '재외동포 언론사 편집인 초청 국제 화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지 한만수 주간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아래〉

사단법인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사장 박기병)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건설회관에서 '재외동포 언론사 편집인 초청 국제 화상 심포지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1월5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제1부) ▲미국의 대선과 북미대화 및 한미관계(제2부), 주제 4 한국인의 정(情)문화와 이민생활(본지 한만수 주간)의 발표 ▲코로나19 시대 뉴미디어와 저널리즘(제3부) 등으로 진행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20여 개국의 재외동포 언론인들과 서울



외신기자클럽 소속 기자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은 본지 김유권 발행인, 한만수 주간, 채홍길 편집국장도 주최측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하 영상을 통해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한일관계, 미국 대선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진행됐다"며 "좋은 지혜를 나누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고국의 정부와 정치권에도 훌륭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대면 및 비대면 화상회의를 결합해 진행됐다. 화상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박기병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적 기반 위에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된 심포지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무거운 심포지엄 주제를 차려놓았지만, 여름 지나 추수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 리틀야구단 '추계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지난해 춘계대회 이어 2년연속 우승 '영광'

구로구 리틀야구단(감독 김학재)이 2020년도 순수주말반 추계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춘계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영광을 거머쥐었다.〈사진〉

총 44개 팀이 참가한 올해 전국 리틀야구대회는 당초 8월 13일부터 6일간 펼쳐질 예정이었으나 대

회 중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중단됐다가 지난 10월 24일 재개됐다.

구로구 리틀야구단은 경기 군포시 리틀야구단, 경기 기흥구 리틀야구단, 경기 수지구 리틀야구단, 인천 연수구 리틀야구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동작구 리틀야구단과 맞붙어 연장



전 끝에 3대2로 승리했다.

2014년 창단한 구로구 리틀야구단은 초등학교 2~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50여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주말 고척교 아래 어린이야구장에 모여 훈련하고 있다.

〈한만수 기자〉

코로나19 극복기원 '축백나무 제례' 열어

높이 15m, 둘레 2.5m 수령 500여년 국내 최고령

가리봉동 정자마당서 최소 인원 참석, 전통방식 진행



코로나19 극복과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2020 가리봉동 축백나무 제례' 행사가 지난 6일 오전 11시 축백나무 정자마당에서 각계 인사,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극복과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2020 가리봉동 축백나무 제례' 행사가 지난 6일 오전 11시 축백나무 정자마당에서 이성 구청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 구로구의회 서호연 예산결산위원장, 노경숙 안전관리위원장, 박철성 의원(전반기 의장)과 이희진 축백나무제추진위원회위원장(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구로구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을 가리봉동 축백나무 아래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다"며 "올해는 축백나무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종식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가리봉동 축백나무는 높이 15m, 둘레 2.5m의 수령 500년

이 넘는 고목으로 축백나무 중 국내 최고령으로 추정된다. 2004년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됐다. 옛날부터 이 나무에는 마을을 지키는 큰 뱀이 살고 있어 가을 추수가 무렵 제를 올리면 우환을 막아준다고 믿어왔다. 6.25로 중단됐던 제례는 2002년 가리봉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활하게 됐다.

행사는 전통방식에 따라 제례상을 준비하고 강신(향을 피우고 잔에 술을 따라 모사 위에 붓는 행위), 축문낭독, 재배, 음복, 소지(얇은 종이에 불을 붙여 공중으로 날리는 일)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제례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한편 구로구는 이번 축백나무제를 영상과 리플릿으로 제작해 우리나라 고유의 제례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여행 못가 답답한 마음 달래드려요”

28일 여행콘서트 ‘공항가는 길’ 개최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행 콘서트 ‘공항 가는 길’을 개최한다.

구로구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구민들이 여행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추억을 나누고 음악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공항 가는 길’ 콘서트를 마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공항 가는 길’ 콘서트는 28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구로구 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각자 간직하고 있는 여행 사진과 사연, 여행팁 등을 소개한다.

공연도 펼쳐진다. 밴드 ‘신나는

섬’이 폴카, 스윙, 아이리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어쿠스틱 악기의 밝고 따뜻한 사운드로 들려준다. ‘김윤환’은 비트박스가 어우러진 호주 전통악기 디저리두를 연주하며 감명 깊었던 호주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구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관람 신청은 15일 저녁 12시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8세 이상 1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여행 사진, 사연 제출자를 우대한다. 접수 결과는 18일 개별 통보한다. 세부 내용은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김유권 기자〉

제6회 대한민국 시낭송 노금선·피기춘씨 대상 수상

서수옥씨 등 역대수상자 축하 시낭송 콘서트도 열어

문학채널, 알파크가 공동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시낭송가 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동자아트홀에서 '역대 수상자 시낭송 콘서트'와 함께 열렸다.

'대한민국 시낭송가 대상' 제6회 대상 수상자로 노금선 시인과 피기춘 시인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시낭송가 대상은 전국 시낭송가의 추천을 받아 심사, 전국에서 2명이 대상수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수상한 노금선씨는 한국문학 대전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피기춘 시인은 한국기독교문학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노금선 시인은 대전MBC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시인과 화가,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보문미술부문 대전 수채화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대전 시전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사회복지부문 '2020년 전국 노인복지시설 실천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찰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피



문학채널, 알파크가 공동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시낭송가 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앞 동자아트홀에서 '역대 수상자 시낭송 콘서트'와 함께 열렸다. 대상을 수상한 노금선 시인과 피기춘 시인이 시낭송을 하고 있다.(사진 아래)



기춘 시인은 강릉 출생으로 중부대학교 교육학 석사, 국문학 박사 과정을 거쳐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했다.

시집 3권과 시낭송이론집을 냈고, 육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고, 조선문학상, 허균문학상, 영랑문학상 등도 수상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김흥식 대표의 인사말과 김소엽 시인, 박현오 시조협회회장, 엄기원 전 아동문학회장 등이 축하와 함께 2부 콘서트로 김재선씨의 시노래, 서수옥 알파크회장의 시낭송, 이강철·김춘경·윤숙희·유현숙 낭송가들이 축하 시낭송을 진행했다.

〈김유권 기자〉

제20회 '구로한목회전' 성황리 열려

10월 28~5일 구루지 갤러리서 회원 작품 66점 전시



제20회 구로한목회전 개막 행사가 지난 10월28일 오후 5시 구루지 갤러리에서 각계 인사와 문화예술인, 한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로한목회(회장 윤호문·구로경우회장)에서 주최하는 제20회 구로한목회전 개막 행사가 지난 10월28일 오후 5시 구루지 갤러리에서 이성 구청장,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객원회 부의장,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 서호연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노경숙 안전관리특위위원장, 정형주 의원, 최문식 구로문화원장, 장동석 구로예총회장, 박정애 구로서예가협회장과, 각 구 경우회장과 한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속 조촐하게 열렸다.

김중태 한목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개막전 행사는 개막전시회 기념 테이프커

팅, 국민의례, 내빈 소개, 회장 인사말과 이성 구청장, 박동웅 의장, 최문식 문화원장, 장동석 예총회장 등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윤호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목회전이 벌써 20회를 맞았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회원들의 작품활동과 관련 정보교환과 회원들의 친목을 더 한층 활성화 하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하고 "이번 출품한 회원들에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회원 64명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 한글, 한문, 문인화 등 모두 66점이 출품돼 5일까지 8일간 전시됐다.

〈채홍길 기자〉



세금연구동아리 '95稅想'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신축 취득세 신고 개선 방안' 주제

구로구가 지난달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0년 지방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0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연구동아리 '95세상' 회장 김정민 팀장(왼쪽)

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7개 지자체 연구동아리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개 팀이 참가해 우수 연

구 사례를 발표했다.

구로구는 지방세 연구 동아리 '95稅想(세상)'의 회장인 김정민 팀장이 '신축 취득세 신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우수한 평

가를 받았다.

구청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95稅想(세상)'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신규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수상과 함께 수여된 상금 200만 원은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채홍길기자〉

구로희망복지재단
Guro hope welfare foundation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35회 ‘아름다운 작은 결혼식’ 거행

송림가·실크로드 야외식장서 재소자 출신 부부 8쌍 초청

“새로운 출발을 통해 새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 고척1동 송림가·실크로드 야외식장에서 이색 합동 결혼식을 가진 8쌍 부부의 남다른 각오다.

이들 부부에게는 공통분모가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면서 감옥살이(인생학교)를 경험한 것이다.

출소 후 이들은 ‘행복’을 되찾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찾게 되면서 가장이라는 책임감은 과거의 굴레를 벗고 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출소자들이 그렇듯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보호위원연합회가 이들을 위해 특별한 결혼식을 마련했다.

제35회 ‘아름다운 작은 결혼



제35회 아름다운 작은 결혼식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 고척1동 송림가·실크로드 야외식장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 자원봉사자, 8쌍 부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식’의 주례는 이계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이 맡았고, 송림가·실크로드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결혼식을 후원했다.

송희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송림가·실크로드 대표)는 “이들이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결혼식 이후에는 행복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바란다”며 “앞으로 이들이 제2인생을 살아가는데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새출발하는 이들에게 장소 제공은 물론, 답례품과 축의금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결혼식에는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김덕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 이상훈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장을 비롯,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발열 체크와 참석인원을 최소화 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각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인간(人間)이란 한문의 간(間)자는 사이 간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상을 다스리는 신과, 오직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이란 무릇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 작용을

두 한 마 음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큰소리가 날 이유가 없다. 그런

집은 대체적으로 집안도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부지런하며 얼굴 표정들이 밝다.

한 나라를 정치하는 통치자

흑백논리의 오류 ①

뜻한다. 따라서 본능(本能)과 상충되며 상충되기도 하고, 본능의 상위 단계라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환경이나, 성격, 사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형제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같은 부모로부터 사상의 씨앗을 교육 받은 결과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집안이 화목하다는 말을 듣는 가정은

의 역할은 집안의 가장의 역할과 같다. 가장이 현명하면 집안이 불행해 질 이유가 없다. 가장이 현명하지 못하면 선대로부터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당대에 쪽박 차는 경우가 많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역사에서 칭송을 할 만큼 현명한 임금만 몇 명 되지 않는다. 세종을 비롯해 성종 등 후대에 훌륭한 임금으로 기억되는 왕들의 특징은 신하들을 잘 다스렸다는 점이다. <본지 회장>

고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류혜진 교수

‘대한내분비학회 연구 본상’ 수상

고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류혜진 교수(사진)가 지난 10월 30일 Virtual Congress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국제 학술대회 ‘AOCE-SICEM 2020’에서 ‘연구 본상’을 수상했다.

대한내분비학회 연구 본상은 지난 3년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구계획서 및 학회 공헌도를 바탕으로 매년 1명의 내분비학 전문교원에서 수여되는 권위 있는



(Impact of the Dynamic Change of Metabolic Health Status on the Incident Type 2 Diabet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이란

학술상이다. 류 교수는 또한 ‘대사 증후군 변동이 2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제목으로 대한내분비학회 국제 학술지인 EnM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게재한 논문이 (1저자 김정아 교수·교신저자 류혜진 교수) 올해의 ‘EnM 학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류 교수는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국내 당뇨병 환자들의 진료 지침 제정을 위한 다방면의 임상 연구 및 체성분 변화와 동맥경화증 진행에 미치는 매개인자 규명에 대한 실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 및 포부를 밝혔다. <김유권기자>

충북 괴산군 절임배추 직거래 신청 접수

1박스 20kg당 3만5,000원

구로구가 김장철을 맞아 자매결연지인 괴산군 절임배추 직거래 신청을 받고 있다.

공급 가격은 1박스(20kg)당 3만5,000원이다. 신청 대상은 구로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만수 기자>

신청 후 11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계좌(우리은행 1006-201-334551, 예금주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로 송금해야 된다.

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광장에서 절임배추를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285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단풍철 등산객은 산행 후! 농업인은 수확 작업 후!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양돈농가 종사자는 경기·강원 접경지역 입산 금지(외국인 종사자도 준수 철저)



양돈농가는 기본 방역시설을 갖추고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농장 내부 청소·소독 지속 실시

- 농장 출입구 및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두텁게 구축
- 트랙터 등 농장 장비는 반드시 세척·소독 후 사육시설과 분리

방역시설 점검

- 울타리, 차량·사람 소독설비, 퇴비장·방조망 등 점검·보완

농장 출입통제

- 외부 차량·농기계·사람은 농장 내 진입 금지

농장 출입시 손 세척·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준수

- 사람과 접촉이 잦은 모돈(어미돼지)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모돈사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시 위생장갑 및 전용장화 착용



ASF 의심돼지 발견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1588-9060,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 강서·구로·금천 분소 개소

항공기소음 피해 인근지역까지 민원접수 등 사업 범위 확대

서울시가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으로 소음 피해가 심한 양천구뿐만 아니라 인근지역(70웨클)까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기존 양천센터 외에 강서·구로·금천분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강서·구로분소를 개소한데 이어 10월 말 금천분소의 문을 열어 주민 지원에 나섰다.

분소가 설치되는 지역은 70~75 웨클에 해당하는 공항소음 인근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간 항공기소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음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이하, 공항소음센터)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소음피해가 가장 큰 양천구를 제외한 강서, 구로, 금천구의 공항소음 피해 인구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22만 여명, 세대수는 9만7천 세대에 이른다.

이렇게 피해 지역이 넓고 피해



서울시가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관련 기존 양천센터 외에 강서·구로·금천분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인구가 많아 그간 지속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공항소음대책지역은 방음시설·냉방기·여름철 전기료 등이 지원되지만 상대적으로 소음이 조금 낮은 인근지역은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공항소음센터는 강서·구로·금천구에 각각 분소를 설치하고 분소장을 비롯한 각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듣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공항소음센터 이영석 센터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뿐 아니라 그간 소음피해는 있었지만 소외되었던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충실하게 듣겠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적절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제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합리적인 피해지원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분소는 공항소음 민원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캠페인, 지역사회



사진 오른쪽부터 이성 구청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보대사인 하니씨가 지난 6일 구로역 인근 철길에서 열린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에 참석했다.

“구로역 철길따라 화사한 벽화가 생겼어요”

복권위원회 벽화그리기 봉사 ...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성 구청장 참여

구로역 인근 철길을 따라 화사한 벽화가 생겼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난 6일 구로역 공구사가 철길 인근에 70여m의 벽화를 그려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시켰다.

복권위원회 행복공감 봉사단은 철길 인근 회색 벽과 대비되는 환한 바탕을 만들고 다양한 색상의 나무 일러스트를 그려 넣어 밝고 긍정적인 벽화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날 벽화그리기 봉사에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보대사 가수 하니, 행복공감 봉사단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성 구청장도 참석했다.

행복공감 봉사단은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이다. 2008년 발족, 현재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채홍길 기자>

7개 초중고교 ‘에코스쿨 사업’ 완료

구현교·구일교·영림중·구일중·개봉중·개봉초·오류초
산책로, 휴게시설 등 갖추고 수목·초화류 등 식재



구로구가 학교 내 유휴부지를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학교의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사진은 영림중 에코스쿨사업>

구로구가 관내 학교 7곳의 에코스쿨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학교 내 유휴부지를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학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7개 학교의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구로구는 ‘에코스쿨’ 조성을 위해 운동장 주변 등 자투리 공간에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수목, 초화류를 심었다. 새단장된 공간은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구로구는 10억원을 투입해 구현교, 영림중, 구일교, 구일중, 개봉

중, 개봉초, 오류초에서 사업을 펼쳤다.

휴게시설(데크쉼터·앉음벽), 산책로, 생태연못, 나비정원, 텃밭, 압석원, 야외무대 등을 학교별로 상황에 맞춰 조성했다. 이밖에도 배롱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청단풍, 앵도나무 등 총 7,200여주의 수목과 꽃잔디, 구절초, 맥문동 등 초화류 총 2,800여본을 식재했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서 학생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맑고 푸른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2020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선포식’ 열려

6일 구민회관에서 유공자 감사장·표창장 수여식도



‘2020 소상공인의 날 및 주간행사’ 선포식이 지난 6일 오후2시 구민회관에서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개최했다.

‘2020 소상공인의 날 및 주간행사’ 선포식이 지난 6일 오후2시 구로구민회관에서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종득) 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이성 구청장을 대신해 김성종 기획경제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이호성 정의당 구로지역위원장,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김인제 의원, 구로구의회 조미향 운영위원장,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 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성 의원, 정대근

의원, 김철수 의원, 이명숙 의원, 그리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리, 김종득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등 각 구 소상공인회 연합회장, 임원·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상 상임운영위원의 사회로 열렸다.

행사는 국민의례, 김종득 구로구 소상공인회 연합회장 인사말,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리 기념사, 윤건영 국회의원 축사, 이성 구청장 영상 축사,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축사, 이호성 정의당 구로지역위원장 축사, 장

인홍 서울시의회 의원 축사가 이어졌다.

김종득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소상공인의 날은 그동안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11월 5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념일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주간행사 선포식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과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상권회복의 모티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유공자 감사장과 표창장 수여자 명단이다.

◇소상공인회 연합회장상 : ▲박철성 구의원(전반기 의장) 감사장 ▲이진희 주무 감사장 ▲김용관 운영위원 표창장 ▲주재선 운영위원 표창장

◇구청장 표창장 : ▲김영상 상임운영위원 ▲최영욱 이사 ▲김윤호 이사

◇구의장 표창장 : ▲윤규해 이사 ▲이석민 운영위원 ▲한길로 소명학기 대표. <채홍길 기자>

관내 확진자 5명 늘어 모두 210명

관내 헬스장 ‘크로스핏 잭팟’ 방문 관련자 늘어

9일 현재 197명 완치 퇴원-13명 치료중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5명이 추가 모두 210명으로 늘었다.

9일 현재 197명이 완치 퇴원하고 13명이 치료중이다.

관내 210번 확진자(신도림동)는 205번 확진자(10월31일)가 이용한 관내 헬스장 ‘크로스핏 잭팟’(구로구 중앙로 134)방문자로 지난 2일 무증상 상태로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3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동거가족 2명은 음성이다.

206~209번 확진자도 205번 확진자가 방문한 실내운동시설 ‘크로스핏 잭팟’ 접촉자로 지난 1,2일 검사를 받고 양성 판명됐다.

구로구는 지난 3일 안전문자를 보내 관내 실내 운동시설인 ‘크로스핏 잭팟’(구로구 중앙로 134)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2일 양성판정을 받은 구민 4명

과 광주광역시 방문중 확진판정을 받은 1명 등 5명이 20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들은 ‘크로스핏 잭팟’ 이용자로 확인됐다.

‘크로스핏 잭팟’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방문자 명단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은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폐쇄명령 조치를 내렸다.

9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210명으로 치료중 13명, 완치자 197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 123명, 해외입국자 341명 등 모두 464명, 능동감시대상자 2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

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구 접촉 49명, 해외 입국 4명, 기타 7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9일 현재 모두 6,372명으로 구청별로 보면 ▲관악구가 486명 ▲송파구 438명으로 2개구가 400명을 넘어섰고 ▲강남구 375명 ▲성북구가 363명 ▲노원구 337명 ▲강서구 324명으로 4개구가 300명을 넘어섰다. 또 ▲은평구 283명 ▲동작구 275명 ▲서초구 251명 ▲도봉구 233명 ▲영등포구 227명 ▲중랑구 211명 ▲강동구 211명 ▲구로구 210명 ▲양천구 201명으로 9개구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어 ▲동대문구 199명 ▲마포구 191명 ▲서대문구 165명 ▲성동구 165명 ▲강북구 161명 ▲용산구 158명 ▲광진구 146명 으로 7개구가 100명선을 넘었다. 이어 ▲금천구 99명 ▲종로구 98명 ▲중구 68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채홍길 기자>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에 ‘사랑의 쌀’ 전달

구로경찰서 광장서 10kg짜리 70포... 마스크 1000장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회장 이학만)는 지난 4일 오후2시 구로경찰서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행사를 가졌다.

이번 쌀 전달식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 분위기 확산과 안정적 정착 생활에 희망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쌀 10Kg 70포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관계로 협의회 자문위원 및 관내 북한이탈주민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이학만 협의회장 개회사 △이성 구청장 격려사 △이병귀 구로경찰서장 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가 지난 4일 오후2시 구로경찰서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행사를 가졌다.

△북한이탈주민 대표 3인에 쌀 전달 △A3 이진진 이사 KF94마스크 지원(1,000장)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관내에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서울시 장애인정보화제전 구로구 4명 입상

문서작성 부문 김혜진 씨 금상

구로구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시 장애인정보화제전’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구로구 장애인 정보화교실 회원 10명이 출전해 3개 부문에서 4명이 입상했다.

수상자는 ▲문서작성부문 금상 김혜진 씨(50세), 동상 박일현 씨

(47세) ▲엑셀부문 은상 김선영 씨(40세) ▲PC정보검색부문 장려상 송옥석 씨(43세)다.

서울시 장애인정보화제전은 장애인의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시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대회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했다.

<김유권 기자>

가리봉동 등 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구로구가 구로4동·가리봉동·개봉1동·오류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동 1기 위원 임기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19일까지 2기 위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소속된 사업장, 학교, 단체, 기관의 주소가 해당 동인 경우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 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구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동별 위원추천관리위원회의 공개추첨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다.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치계획 수립·실행, 동 단위 사업계획 수립, 주민자치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유권 기자>

“코로나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구로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에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안전 위험 요인이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확인해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고·제안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영업

행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밀폐된 시설에서 밀접접촉을 일으키는 각종 행위 ▲불법 무등록 방문 판매업체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침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채홍길 기자>

관내 중고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함’ 설치

서울 자치구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

선호 제품 3종 비치, 자유롭게 선택... 1인당 월 30개까지 이용

구로구가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한다.

구로구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마련하고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며 “올해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구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게 됐다.

구로구는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신했다는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공공 영역에서 생리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의 회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보건실에 생리대를 비치했다. 급하

게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은 보건실을 방문해 이용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보건실을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함께 수치심, 낙인효과로 인해 이용률이 낮았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편리성,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관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 보관함 제작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관내 희망 고등학교, 구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12곳에 ‘생리대 보관함’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설치장소는 ▲신도림고등학교 ▲구일고등학교 ▲경인고등학교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성베드로학교 ▲정진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오류고등학교 ▲구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다.

미설치한 고등학교 4곳에도 학



구로구가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한다. 올해는 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생리대 보관함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생리대 3종을 비치해 각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매월 30개까지 자유롭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다.

구로구는 매달 총 9만7,000여개 분량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이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이명운 시인, 시집 '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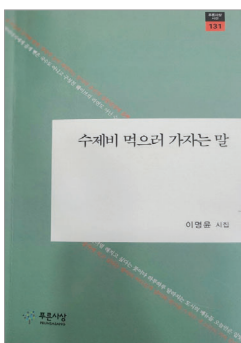
이명운 시인이 최근 시집 '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말'을 출간했다.

시란 참으로 묘한 마력을 가졌다. 한번 들어서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밥이 되는 것도 아니다.

독자들은 멀리 떠나고 시인들끼리 서로의 시를 읽고 품평하는 시대, 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난해해져 감칠맛이 사라진 탓도 있겠지만 시가 독자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나는 한참을 그런 생각에 침윤(浸潤)되어 있다.

시인들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의 시대에서 무언가 한줄기 존재의 빛이 되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다. 그 갈망은 덧이며 희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조, 별레 먹은 기동이나 사계절이 구르며 내는 자연의 소리 등



등은 너무나 철학적이 고 시적이어서 끝림을 단절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시가 추상화의 경향으로 흐르면서 생명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렇듯 시는 다양한 얼굴을 가졌다. 하여 시를 읽다보면 작가의 마음이 뻗어나간 뿌리를 투시할 수 있게 된다.

감각적인 시어를 물 흐르듯 뱉어내는 천부적인 시인이 있고 밤낮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과 시인이 있다. 이명운시인은 후자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의 시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이 시집은 현재의 시간을 건너는 우리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허리 굽은 노파가 오천 원에 파는 죽음과 모처럼 만났지만 말 몇 마디 주고받고 헤어지는 표정 없는 사람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처럼 경계 없는 죽음, 비의적 포착을 통해 파노라마를 펼친다.

무수한 감각적 체험이 정서를 빚고 정서는 술 항아리 속에서 발효되어 어느 날 명주를 탄생시킨다. 명주를 빚는 시인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이명운 시인은 2006년 전태일문학상 수상, 2007년 계간지 시안으로 등단했다. 시집 '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말' 푸른사상 출간했다. <조운주 객원기자 (시인) 333news@hanmail.net>

순수문예지 '문학광장' 85호 발간

시·수필 신인문학상 당선작, 심사평·소감 등 실려

28일 84기~85기 문학상 시상식·회원 화합의 장 행사

구로지역의 순수 문학잡지인 격월간 '문학광장' (발행인 김옥자)이 지난 1일 2020년 11-12월호인 통권 제85호를 발간했다.

이번 85호에는 김옥자 발행인의 '위기는 기회다'와 김중위 전 환경부장관 겸 전 국회의원(수필가)의 '탄허 스님과 시애를 추장' 주제로 권두언이 실렸다. '이달의 시인'엔 김동완 시인의 '감'의 4편과 이화순 시인의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의 4편이 게재됐다.

11,12월 여는시는 허남기 시인의 순리(順理)와, 신작詩로는 김

만수, 김옥자, 모종락, 표천길, 오현월, 유세영, 임명호, 한병진, 허남기, 정순미 시인 등 20명 회원들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 됐다.

또 신작수필엔 강정희, 이종명, 황석현, 허영도 수필가 등 8인의 작품이 실렸다. 신작 소설에는 김경업, 황선영 작가의 작품이 게재됐다.

또한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시 부문에 민인기씨, 이승한씨, 이원문씨, 그리고 수필부문에 박한목씨, 장연심씨의 작품 및 당선 소감, 심사평이 자세하게 실렸다.



한편 문학광장은 오는 11월 28일(토요일) 오후 2시 구로아트밸리 지하1층 소극장에서 제84, 85기 신인문학상 시상식과 인근 음식점 채선당에서 '회원 화합의 장' 행사를 개최한다.

<채홍길 기자>

초대시

홍시감

시인 김소엽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익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애끓는 사랑으로
가슴앓이 해야 하는가

나는 모른다
내안의 모든 독소들이
햇빛에 더 달구어져서
사랑으로 녹아
단 맛 들 때까지

아직은 텅더 텅은
삶의 파생상품까지 보듬어
찬 서리가 내리는 날까지
저 푸른 창공에 매달려
나는 까치밥이 되어도 좋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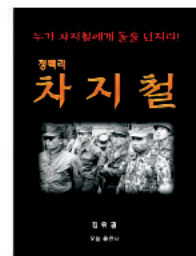
내 시(詩)가 내안의 전액을
모두 빨아올려
만고풍상까지
농익은 사랑으로
달디 단 스프가 될 때까지
나는 아직도 기다릴 것이다

-이대 영문과 졸업(문학박사)

-한국문학 등단

-시집 : 그대는 별로뜨고, 지금 우리는 사랑에 서 있지만, 풀잎의 사랑 등 15권.

-운동주문학상 본상, 한국문학상, 신시인당상 등.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